

### 아침 초대석

### 16일 퇴임하는 강정채 전남대 총장

### 중·고생 50명 '경찰특공대 여름캠프'

# “전남대 잠재력 확인...일류대학 멀지 않아”

“총장직 수행하는 동안 전남대의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6일 퇴임하는 전남대 강정채(61) 총장이 밝힌 소회다. 강 총장은 “지난 4년 생애 가장 긴장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축적된 긍정적 경험들을 끊임 없이 변화시켜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 꾸준히 변화해 나가야

다음은 강 총장과의 일문일답.

—재임 4년에 대해 평가해달라.

▲세계 인류를 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 없이 달려왔다. 특히 지난해 ‘2020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남대가 창조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객관적 지표도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모든 구성원들이 시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감사하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역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여수대와 통합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보수적인 대학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남대가 종합대의 문화와 벽을 깨고 다른 대학, 그리고 지역과 함께 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또 여수대와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이는 단순히 대학과 대학의 통합이 아니라 광주와 여수가 하나 되는 과정이었음을 뜻한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대학과도 통합해 호남이 보다 큰 하나가 됐으면 한다. 서로 협력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식인 그룹이 지역 사회에 지금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화, 경영, 의학, 법학 등 전문대학원이 세인데.

▲특정 학문만을 육성·특성화하면서 기초학문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은 보다 학문을 크게 아우르기 위한 과정이다. 학문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학문간 연관을 갖게 된다. 철학이 없는 과학은 의미 없고, 역사를 외면한 학문 또한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은.

▲모든 것을 돈과 경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큰 문제다.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대학 대 대학, 개인 대 개인의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오로지 싸움에서 살아남는 것만 가르치다 보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어떻게 인류를 품고 가야할 국가 목표가 경쟁이고 돈이어야 하는가. 신뢰, 배려, 공존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

#### 여수대와 통합 긍정적

—구성원간 화합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은.

▲조직 내부에서부터 자정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협동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전남대를 지켰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지 말라. 자신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남대의 자존심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신임 총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변화는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단 ‘빨리 이뤄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무한



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믿고 긍정적인 경험은 축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계속 버리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길, 꾸준히 변화해 나가길 바란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은 최근 광산구 대신동 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중·고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수상 인명구조 훈련 등 경찰특공대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광주경찰청 제공>

#### 아동양육시설원생 영광원전 등 견학



한국전력 광주전력관리처 사회봉사단(단장 조준익)은 최근 아동양육시설인 신애원과 형제사 등 원생 60여명을 초청, 영광원전 등 전력시설 견학을 실시했다. <한국전력관리처 제공>

#### 동신대, 14일까지 '예비대학 프로그램' 실시



동신대학교는 2009학년도 수시학기 합격자 68명을 초청, 11~14일까지 4일간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측은 강좌에 참가한 신입생들에게 입학 후 학점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동신대 제공>

#### 광주 초·중·고 교사 '증권선물 워크숍'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소장 황성웅)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역 초·중·고교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 워크숍'을 실시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 제공>

### 이영애, 홍콩인 가장 좋아하는 한류스타

홍콩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은 이영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홍콩 사람 열명 가운데 아홉명이 한류(韓流) 열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가 지난 6월14~15일 홍콩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 홍콩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한 홍콩인 1천6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11일 한국관광공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콩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복수응답)을 물었는데 이영애를 꼽은 응답자가 16.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송혜교(15.9%), 전지현(10.2%), 배용준(8.1%), 지진희(6.8%), 가수 비(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TV 드라마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작품을 물었는데 이영애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대장금'을 꼽은 응답자가 26.7%로 가장 많



았고 이어 전지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18.5%), 송혜교가 열연한 '가을동화'(13.4%), 역시 송혜교 주연의 '풀하우스'(13.3%), 김선아의 '내 이름은 김삼순'(7.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류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90.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른다는 답변은 9.1%에 불과했다.

애국가 가사와 거의 같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민초들이 국가로 부르기 시작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국가로 불렸다.

### 광주·전남 출신 4명 등 독립유공자 361명 포상

11일 국가보훈처는 제63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전남출신 4명 등 361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한다.

이번에 포상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66명(독립장 2명, 애국장 59명, 애족장 105명), 건국포장 65명, 대통령표창 130명 등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4명이고 여성은 10명에 이른다.

애족장으로 추서된 광주 하남 출신의 박노백(1903~1958) 선생은 일본 조도전대학에 유학 중이던 1927년 5월 신간회 동경지회의 창립에 참여해 총무간사, 학생부 간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고려공산청년회 일부분에 가입해 동경 조선유학생학우회의 프락션 책임자 등으로 활동했다.

같은 애족장으로 추서된 나주 죽포

출신의 최봉관(1880~1919) 선생은 지난 1910년 1월 나주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다.

애족장으로 추서된 전북 김제 출신의 조내현(1886~1932) 선생은 지난 1919년 6~10월 사이 서울에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중국 지폐를 제조하는 등 독립운동을 했다.

대통령 표창으로 추서된 광주 본촌 출신의 김택순(1901~1984) 선생은 광주 수피아여자학교 학생이었던 지난 1919년 3월10일 광주 부동고 부근 및 시장 등지에서 송일학교와 수피아여자 학교 학생들과 함께 1천여명의 군중을 이끌고 태극기를 나눠주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광정필기자 kps@kwangju.co.kr

### 애국지사 이정우 선생 별세

지난 9일 숙환으로 별세한 강진 출신 애국지사 이정우 선생이 11일 오전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향년 87세.

1921년 강진에서 출생한 선생은 도쿄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0년 8월 오유근, 노재용 등과 함께 민족의식을 고양할 목적으로 독서회를 조직, 해외



독립운동 전개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직 확대 및 동지 규합에 힘을 쏟았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유족으로는 2남3녀가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가수 김장훈 '애국가' 인터넷 무료 배포

가수 김장훈이 자신이 부른 '애국가'를 싸이월드, 멜론, 네이버 등 3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8일부터 무료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11일 김장훈 소속사가 밝혔다.



맞아 국가보훈처에 '애국가'의 무료 배포를 제안했고 허락을 받았다. 김장훈이 부른 '애국가'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의 선율을 차용해 만든 노래다.

김장훈은 광복의 의미를 새기고 독립군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2005년 제작한 '광복 60년 독립군가 다시부르기' 음반에 '애국가'를 불러 수록했다. 그는 베이징올림픽과 건국 60주년을

1908년 윤치호 선생이 펴낸 '찬미가' 집에 수록된 이 노래의 가사는 지금의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동창·동문회

- ▲복성중 13회 동창회(회장 박종우) 월례회=13일(수) 오후 6시30분 백운산회관. 062-222-4569.
- ▲복성중 14회 동창회(회장 이현규) 월례회=14일(목) 오후 6시 오복성회관. 062-224-7676.
- ▲재광 전주 영생회 동문회(회장 박노호)=19일(화) 오후 7시 쌍촌동 광주국제청 인근 청원회관. 062-385-3395.
- ▲조대부고 20회 동창회(회장 임성기)=20일(수) 오후 7시 현대예식장 정문 건너편 화랑궁 회관. 062-223-7370.

#### 중친회

- ▲광산구 가락 중친회(회장 김영호) 월례회=15일(금) 송정2동 중친

회관. 062-944-1951, 016-612-8125 (김정근).

#### 모임

- ▲국제외이즈엔 상무클럽 월례회=12일(화) 오후 7시 동구청 옆 불로가물치. 010-6688-8983(사무장 조준호).

#### 알림

- ▲광주종합사회복지관 광주이동 가족상담센터 무료 상담=아동 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 상담. 062-264-4370.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대 동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의=23일(토) 오후 2시~5시 중앙도서관 5층,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011-609-8117.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홈패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리츠,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062-363-2240.

#### 모집

-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 ▲한마을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꽁꽁,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 ▲한국웃음요기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

381-8254, 011-9374-7482.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무선·시계·베개·주차중·방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늘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 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단 모집=광주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 www.gjsad.or.kr, 062-384-5544.

#### 부음

- ▲박귀길씨 별세 김대용(사업)·대원(조선대 부총장)·대성(사업)·난영·남성씨 모친상 김은영·장희경(광주대 교수)·김승주씨 시모상 김영철(전 조양운수 회장)씨 빙모상=발인 12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11-640-7815.
- ▲손용업(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씨 별세 손영진씨 상배 규석·희정씨 부친상=발인 12일(화) 전남대병원

영안실 1분향소. 062-220-6891.

▲김춘심씨 별세 강창원(신창스튜디오·평화라이온스 총무)씨 모친상=발인 12일(화) 광주교 앞 남도장례식장 201분향소. 062-223-7715.

▲박광수씨 별세 병훈(서림조경)·병목(개인사업)·병욱(종근당 약국)·병희씨 부친상 김영식·박춘택(개인사업)씨 빙모상=발인 1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귀남씨 별세 박태웅·철웅·영란·영미·영주·소영씨 모친상 조일업·김현수·김대화씨 빙모상=발인 13일(수) 학동 금호 장례식장 401분향소. 062-227-4000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님들 모두 특별분양  
11월 (062)222-0201